

이현태

주로 온라인상의 소리와 영상 혹은 이미지를 엮어,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즉흥적으로 무한히 변주를 거듭하는 온라인 환경을 개발하고 있다.

서로 다른 것이 한데 모여 벌어지는 예술적 사건에 관심이 많다. 서로 다른 것이 저마다의 서로 다른 성질을 감당껏 이해하며 역일 때 일어나는 조화로운 현상도 물론 눈이 가지만, 서로 다른 것이 예기치 않게 엮여 벌어지는 밀도 끝도 없는 현상¹에 주로 시선을 빼앗긴다. 그렇게 사로잡힌 시간을 통해 예술에 대한 나름의 시선을 가꾸고 실험해왔다.

1 그러한 현상 가운데 특히 의도 없이, 혹은 의도 없어 보이는,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변화에 주의를 기울인다. 의미 없는 혹은 아직 의미를 모르겠는 시간이 정신없이, 혹은 알다가도 모를 뜻대로, 흐르듯 변한다. 의미 모를 혹은 없을지도 모를 시간 어딘가에서 우연히 마주하는 예사롭지 않은 질서와 예기치 못한 무질서의 밀도 끝도 없는 리듬이 내 감각의 빈틈을 두드릴 때, 그런 때에 나는 낯을 잃곤 했다. 낯 놓고 기억 자도 모르는 상태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이 이 탐구의 원동력인 듯하다.

나 선정 원

온라인 공간에서 찾은 스트리밍 콘텐츠를 웹 언어를 통해 조작하여 반복되는 소리와 색의 변화를 추출하고, 이를 동그라미 혹은 네모 모양 등의 틀에 스트리밍하여 오디오비주얼 덩어리로 변용시킨다. 이렇게 마련된 여러 가지 덩어리를 일종의 모듈로 삼아, 이들의 조합을 통해 여러가지 형태 혹은 상태를 띤 사이트site를 개발한다. 이렇게 개발된 사이트에 접속하면 그 즉시 이곳에 심어진embed 웹상의 여러 소리와 빛이 현장site으로 스트리밍 되어, 따로 또 같이, 즉흥적인 합주를 시작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마련된 오디오비주얼 덩어리 여럿을 예술곳 산양에 심었다.

각 덩어리가 자신의 주어진 내용을 나름의 호흡²으로 되풀이하며 따로 또 같이 공간을 변화시켜나간다. 이들의 변화가 시간에 그리는 궤적이 나선을 닮은듯하여 이를 나선정원이라 부르게 되었다. 주어진 시간³ 동안 이곳 예술곳 산양⁴에 나선정원이 시시각각 벌어져 재깍재깍⁵ 사라지고 있다.

2 이 작업은 온라인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까닭에, 버퍼링 혹은 그 순간의 인터넷 사정에 따라, 이들이 스트리밍 되는 과정에 예기치 않은 시간적 간극이 발생한다. 기계적인 반복 행위를 거듭하는 각 덩어리의 반복 과정에 제어할 수 없는 틈이 끼어들며, 각각의 덩어리는 저마다의 변칙적인 호흡을 갖게 된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이 변덕스런 호흡으로 주어진 내용을 반복하는 오디오비주얼 덩어리 하나하나를 이곳 예술곳 산양에 심고embed 가꾸어 1초에 1초씩 자라고 1초에 1초씩 사라지는 나선정원을 발생시켰다.

3 2022년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4 63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181

5 1sec/sec